

# 원격수업 듣다가...유튜브에 빠진 초등생들

### 코로나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급증... 지난해 '과의존 위험군' 15%

### 알고리즘에 유해 콘텐츠 접속 우려... 무분별한 링크 첨부 신중해야

“오죽하면 아이 방에 CCTV라도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했나니까요. 숙제하는가 했는데, 게임을 보고 있더라구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게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 고모(41)씨는 지난해 아들과 디지털 기기 이용 문제로 1년 내내 씨름했다고 털어놓았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주일에 1-2일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게 되면서 자녀의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고 태블릿PC도 구매했지만, 사용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잔소리하는 날도 늘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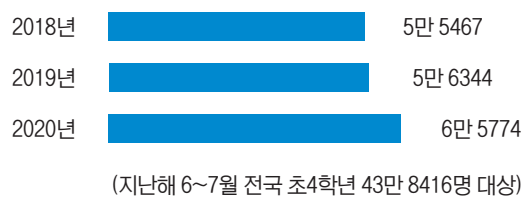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될 예정인 가운데, 학부모 사이에서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가 e학습터 등 학습공간에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는 일이 많은데, 수업이 끝나고도 유튜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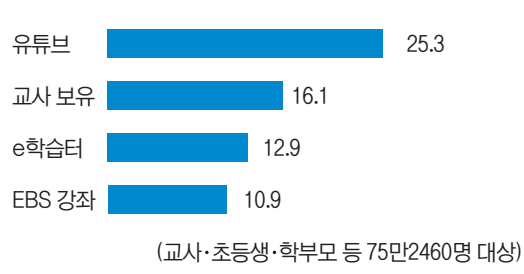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7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43만 8416명을 상대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6만 5774명(15.0%)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2018년(5만 5467명) 대비 2019년(5만 6344명)에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코로나19가 터진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16.7%나 급증했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초등학교 5-6학년생 학부모 모 최모(42)씨는 “지난해 2학기 때도 쌍방향수업은 1교시에만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보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교육부는 코로나19가 미래교육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단위:명)



■2020년 초고 2학기 원격수업 활용 콘텐츠 (단위:%)



알당겼다고 하는데 엄마들은 아이가 유튜브 중독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으로 홀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인터넷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원격수업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제기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교사 3만2133명, 초등학생 8만 9487명, 중·고등학생 20만 8048명, 학부모 42만 2792명 등 총 75만 2460명을 상대로 조사해 최근 공개한 ‘2020년 2학기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에 활용되는 콘텐츠의 19.2%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유튜브)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전체 원격수업 활용 콘텐츠의 약 4분의 1(25.3%)이 유튜브 자료로 집계됐다. e학습터 콘텐츠는 12.9%, EBS 강좌는 10.9%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직접 개발하거나 보유한 자료를 활용한 비율은 16.1%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격수업 시에도 ‘유튜브 동영상 링크’ 첨부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교

사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특성상 알고리즘에 의해 연관 동영상상이 뜨고, 그보다 보면 아이들이 유해 영상을 보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초등학교의 교사는 “지난해에는 원격수업이 갑자기 시작됐기 때문에 교사들이 쌍방향수업을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후 1년여가 지났는데도 유튜브에 의존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은 학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은선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유튜브로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단순히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해·혐오 콘텐츠를 보면 안 되는 이유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건전 콘텐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 내 조력자가 없는 취약 계층은 디지털 중독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등교수업 확대 방안과 원격수업 스트레스 해소책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 광주시 특별 점검... 위생 불량 등 32곳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실명제를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 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

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마쳐야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오는 3월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을 접종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2종을 접종해야 한다. 여학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접종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故 강신석 목사 영면 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서故 강신석 목사의 하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전남교육청 본청 과장·교육장 7명 보직인사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로 본청 과장과 교육장 등 7명의 보직인사를 8일 단행했다. 본청 미래인재과장에 고광진 문향고 교장, 체육

건강예수과장에 조영래 본청 노사정책과 노사협력팀 장학관을 각각 임용했다. 창의융합교육원장에 김성희 교육연수원 연수기

획부장,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이현희 본청 미래인재과장,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김성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최광희 본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팀장,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서정필 완도신지중 교장을 각각 발령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MG대광새마을금고

## 창립40주년

# “나에게 힘이 되는 대광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아파트 분양자금

대출한도 **최고 70%**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최고 80%**

햇 살 론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